

요약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epoch)에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의 기저(基底)에 있는 숨어있는 가치(價値)를 바라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청(廳)지기로서의 삶(stewardship)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류세라고 명명된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는 전(全) 지구적 범위의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은 이러한 청지기적 삶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경적인 청지기적 삶의 회복은 인류세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緩和·抑制)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소박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기적인 성격을 지닌 경제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가 아닌, 선한(kalos) 청지기적 인간(homo oikonomos)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된다면, 이기적인 인간중심(anthropocentric)의 세(世, epoch, [Anthropocene])가 아닌 신실한(信實, faithful) 청지기적 삶(as good stewards)이 중심이 되는 세(時代)를 지향함으로써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인류세. 호모 에코노미쿠스. 청(廳)지기적 인간. 기독교세계관. 인간중심.

I 들어가면서

1 OIKONOMIA VS. CHREMATISTIKE.

고전 희랍어에 경제생활을 묘사하는 단어가 2개 존재했다고 한다(『정치학』 1권, 『니코마코스윤리학』, 15권). 이 두 단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가치[世界觀]에 근거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고전 희랍어에서는 oikonomia(오이코노미아, οἰκονομία)와 chrematistike(크레마티스티케, χρηματιστική)라는 두 단어가 경제생활을 묘사하는 단어였다. 크레마티스티케는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더욱 많은 금전적 소유를 통해 자기 부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이코노미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토지를 잘 관리함으로써 그 땅이 계속 과실이 풍성하게 하며, 그리하여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각자에게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지기의 행위를 표시하는” 말이다.(Goudzwaard, 1979: 211-222; Walsh and Middleton, 1989: 195 재인용. 헬라어는 본 연구자 추가함.)

오늘날 ‘경제적 인간’을 뜻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경우 에코노미쿠스라는 명칭[綴字]에서 볼 수 있듯이, 어원적으로는 오이코스(oikos, οἶκος)나 오이코노모스(oikonomos, οἰκονόμος)와 같은 것에서 온 것이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 재화나 화폐를 의미하는 ‘크레마[타]’(χρέμα[τα], chréma[ta])에 삶을 중심으로 둔-즉 맘몬을 숭배하는-‘돈벌이’(貨殖)만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연구자들의 지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터 플레밍(Peter Fleming)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합리적 인간[Homo Economicus]은 과도하게 포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신화에 싸여 있으며, 극도로 금전 지향적인 인간이다. ... 호모 이코노미쿠스란 처음부터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태를 상징하는 인간 형으로 정의됐다. 이 경제적 인간은 오직 금전의 취득이라는 목표에 따라 동기부여되며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특히 ‘공공’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Fleming, 2018: 10-11. 강조는 본 연구자)1)

청지기적 삶의 본질에서 이탈한 맘몬[물질·돈]을 숭배하는 경제적 인간의 경제활동은 많은 문제[일종의 나비효과]를 낳게 되고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인류세의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살인적인 폭염, 세계 곳곳의 빈곤과 굶주림, 갈증과 가뭄, 마실 수 없는 물과 공기, COVID-19와 같은 질병의 전파, 기후분쟁, 시스템의 붕괴 등]의 기저에는 청지기적 인간적 삶을 거부한 크레마스티네(돈벌이, 極端的 貨殖)만을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맘몬에 대한 절대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 연구문제와 연구범위

본고의 연구문제(研究問題)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인류세 문제의 기저를 바라보는’ 것이

1) 다음도 참조하라.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는 친구도, 긴장을 늦추는 법도 없다. 항상 자기 이익에 골몰하느라 너무 바쁘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아마 사이코패스 취급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인간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이론적 구성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Davies, 2015: 74); 호모에코노미쿠스의 눈에는 경제적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인간은, 정치, 사회, 문화와 같은 비경제적 목적이나 도덕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경제적 존재다(한성안, 2020: 58).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자기이해에 몰두하는 인간유형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이런 인간형이 경제학 뿐 아니라 교육, 생물학, 진화심리학, 그리고 정치학에서도 지배적이게 되었다. 이런 경향에 따라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기업가적 마인드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서 등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내면까지 파고들었다”(김봉률, 2014. “국문초록”). 김봉률 (2014). “인성교육과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교육연구』. 21(2) (2014). 33-57.; “호모 이코노미쿠스 ... 이것은 자본주의 이전 비산업사회의 젠더 구성 원리인 상보성과는 대치되는 특징으로 오직 경제에만 매진하는 새로운 인간의 등장을 의미한다”(박혜영, 2018: ‘국문초록’). 박혜영 (2018).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구성과 남성성의 변화-생태적 대안에 대한 모색”. 『人文論叢』. 75(1). 567-600.; 다음도 참고 “경제학자이며 인지과학자인 허버트 사이먼(H. Simon)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했는데, 이는 그때까지의 경제학에서 가정되던 합리적 인간의 모습, 즉 무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항상 최적의 선택만을 고집하는 인간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컸다고 한다.”(박준석, 2021: 33); 피오라몬티(Lorenzo Fioramonti)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세상에서는 모든 곳에 시장이 존재한다. 일정한 자원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시장이 없다면 실험과 설문지를 통해 ‘가상의 시장’을 운영하려 든다.”(Fioramonti, 2015: 195); 이석구 (2018). “‘호모 이코노미쿠스’로서의 로빈슨 크루소 재고”. 『영어 영문학』. 64(4). 629-650.; 오은하 (2017). “로빈소나드로 보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표상: 다니엘 디포와 미셸 투르니에”. 『인문학연구』. 28. 3-41.;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2015), <사회적 경제 사상 연구 및 실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사회적경제: 연구보고서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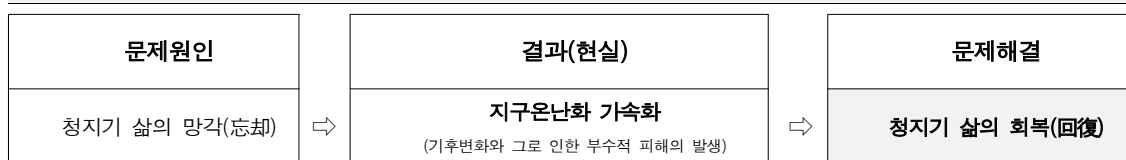
다. 이를 위해 다음을 논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問題原因] 인류세의 전 지구적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연구문제 2: [問題解決]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구온난화와 전 지구적인 부수적인 피해들(collateral damages-Zygmunt Bauman)을 발생하고 있다. 전 지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인류세의 장본인들의 중심에 있는 가치(基底世界觀)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청지기적 삶을 포기[缺如]한 맘몬을 숭배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경제활동을 주도함으로써 인류세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호모 에코노미쿠스로부터 脫皮] 특히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청지기 정신[廳지기職, οίκονομία]의 회복에 대해 다룰 것이다. 비록 논구의 깊이가 원론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식상(食傷)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말이다.

3 관점 밝히기 그리고 기술상 한계(記述上限界)

본 연구는 인류세라고 명명한 오늘날에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환경문제]와 관련된 전 지구적 문제의 기저에 대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점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글쓰기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이론적으로 Hard Science에 해당하는 것만은 예외일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관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더해 오늘날 일부 안티-기독교(Anti-Christianity)들로부터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기독교라는 특정 신앙을 현저하게 나타내는 “‘기독교’세계관”라는 명칭을 굳이 붙이려는 것은 매우 원칙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이 인류세에서 발생하는 전 지구적 사회문제의 해결[抑制]에 도움[一助]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인류세 문제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청지기적 삶의 결여라고 보기 때문이다.²⁾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청지기 삶의 망각[缺如] ⇨ 인류세의 전지구적 문제(地球溫暖化等諸問題發生) ⇨ 청지기적 삶의 회복(回復) ⇨ 오늘날 인류세의 전 지구적(全地球的) 문제해결에 일조(一助)”가 그것이다.

그림: 인류세 문제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모색



2) 요한 록스트룀(John Rockström)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환경스튜어트십(environmental stewardship)”(Rockström und Klum, 2017: 199)을 말한다. 더 구체적인 것은 “7. 스튜어트십을 다시 생각하다.”(Rockström und Klum, 2017: 199-219)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 고의 한계를 밝혀야겠다. 오늘날 인류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기저에 있는 가치들에 대해 고찰할 때 ‘느슨한(weak, soft) 상관관계’를 취하고자 한다. 경성과학(硬性科學, hard science)이 요구하는 인과관계(因果關係)와는 다른 “(상당히) 느슨한’ 상관관계(相關關係)”를 지니는 경우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관관계는 단순히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일리(一理)³⁾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상관관계(相關關係)를 지칭할 뿐임을 밝힌다.

인류세의 문제를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인류세 문제=지구온난화의 문제’라는 환원주의적 기술(記述)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밝힌다. 또한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청지기 삶이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에 속한다는 것이다. 각론적인 의미보다는 총론적 의미에 매우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聖經)이 쓰인 목적이 일차적으로 구원(救援)에 대한 기술(記述)이기 때문에[救贖史]⁴⁾ 오는 당연한 귀결로 생각되어지는데, 한 마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개념의 현실적 사용에 있어 구체적인 각론-행동지침이 빈약한-이 없는 두루 뭉실해질 수 있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세계관에 근거-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청지기에 대한 각론(各論)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앞으로도 매우 필요하다.⁵⁾ 이는 청지기적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의 문제는 삶의 개개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삶의 영역에서 청지기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각 분야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놓고 고민하는 연구자들과 전문가들-기독교학자들이나 비기독교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실천방법(skills and techniques)을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리/저러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필터링(Filtering, 濾過作用)을 통한 변용적 수용[變容的收用, Transformation]이 필요로 한다 것이다(강상우, 2011. 참조: "Spoiling the Egyptians model."). 물론 기독교세계관과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있는 그대로 준용(準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청지기적 삶에 대한 이해의 경우 과거 ‘구원’에 대한 이해가 ‘개인 구원’에 대한 이해로 정체되어 있었던 것처럼 청지기적 삶에 대한 이해가 개인적 차원에서 정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지기의 어원인 ‘오이코스’가 ‘오이쿠메네’(oikoumene; ‘인간 세상 전체’)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II 인류세의 전 지구적 문제 원인과 그 해결

인류세라는 단어적 의미 그대로 인간이 지질시대(地球運命)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힘이 강광대(強·廣大)해졌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다(Ericksen, 2019, 281; Hamiltopn, 2018: 16;

3) 말 그대로 일리(一理)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로 ‘참 일리 있다’의 수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다리(多理)나 진리(眞理)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4) “구원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 모든 피조물의 복지(worldly wellbeing)를 의미한다면,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소비주의 생활방식의 문제는 신학적 문제가 된다. 생태적 인간학은 전문적 지식도, 감상적인 요청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최상의 진리이다.”(종교인대화모임 엮음, 2015: 350).

5) 양희송의 다음 지적을 참조하라. “기독교 세계관’이 원론에 머물고 각론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되었고, 그 원론조차도 자기 성찰이 빠져 있거나 실천력을 상실한 진부한 주장의 되풀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양희송, 2018: 17).

Graham, 2019: 420; 조천호, 2019: 55; Kempf, 2012: 63).

인간의 힘이 아주 강력해져 이제 위협적인 새로운 지질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 “지구 환경에 새겨진 인간의 흔적이 매우 크고 인간의 활동이 대단히 왕성해져 지구 시스템(Earth System) 기능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이 자연의 거대한 힘들과 겨룰 정도가 되었다”[Steffen, Grinevald, Crutzen and McNeil, 2011: 843]는 사실에 입각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Hamilton, 2018: 6 재인용).

인류세 문제의 특징은 전지구적이며 매우 시스템적(systemic)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파블로 솔론 외 등(Pablo Solon, et als)이 저술한 책,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Systemic Alternatives)에서는 ‘시스템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실의 위기는 시스템적 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적 대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Solon, Azam, Aguiton and Beltran, 2018: 10 참조). 유발 N.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도 지구온난화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경을 따라 보호벽을 설치한들 피해갈 수 있을까요. 분명 실패합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나라가 협력해야 합니다.”(Harari, 2018: 30) 피터 호턴(Peter Houghton)도 유사한 지적을 한다. “... 오늘날 문제는 지역 차원이 아니라 전 지구 차원의 오염이라는 점이다. 모두가 약간씩 기여하는 오염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Houghton, 2018: 452).

1 인류세 문제 바라보기: 기저가치(基底價値)와 구조(構造), 그리고 실천행태(實踐行態) 보기

1) 지구온난화와 같은 인류세 문제의 기저에 존재하는 지배적 가치

(1)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절대적 우상, 매머니즘(拜金主義, Mammonism)

인류세의 지구온난화의 기저에 숨어 있는 지배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라면 단언(斷言)하여 매머니즘(拜金主義, Mammonism; 금을 향한 탐욕 auri sacra fames)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 금전적 평가에 의해 매매가 가능해진 세상이 되다시피 한 것이다. 이 사회 전체가 최우선적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경제 환원주의’라고 말해야 할까? 과거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로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J. 샌델(Michael J. Sandel)의 또 다른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What money can't buy: the moral limits of markets)이라는 책이 말해주는 것처럼 진짜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사는[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구나, 모든 것이 매매 가능한 사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생태 악화의 주된 원인은, 현대 환경운동을 촉발시킨 고전 『침묵의 봄』(Silent Spring)의 저자인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역설한 것처럼, “속도와 수량의 신, 빠르고 손쉬운 이윤의 신을 숭배하

고, 그리고 이러한 우상숭배라는 끔찍한 악으로부터 생겨난' 사회에 있는 것이다."(Carson, 1998: 210; Magdoff and Foster, 2012: 33 재인용)

2)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성장케 한 구조: '극단적' 형태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배금주의의 기저(基底)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들이 생존(繁盛)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제도 또한 '돈'이라는 극단적인 논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오늘날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사회구조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와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 그리고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또는 地球化)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이들 세 개념은 이해를 위해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이들 개념은 독자적 노선을 지니기보다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체로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지구화[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장석준, 2011: 9; 최배근, 2018: 4)이라는 단어나, 데이비드 M. 코츠(David M. Kotz)가 자신의 저서의 제목에서 사용한 명칭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Neoliberal Capitalism)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원제 명칭은 The Rise and Fall of Neoliberal Capitalism이다). 특히 주목되어지는 것은 나오미 클라인(Naomi Kline)의 책, This Changes Everything『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를 번역한 이순희 선생이 이 책의 제2장을 "세계화 경제와 온난화: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자유시장 근본주의"라고 적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Klein, 2016: 103-143).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의 앞에 '극단적(過剩)'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처럼 이들 구조들이 극단적인 형태로 작동함으로써 그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으로 말해 '극단적인' 형태가 아닌 수정(?)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인적 견해를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약간 더 비판적이지만 말이다.

(1) 극단적 형태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먼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러 연구자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술에서 신자유주의가 지닌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M. 코츠(David M. Kotz)는 "신자유주의는 인간 사회에 관한 고도로 개인주의적인 개념에 의존하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개인 선택의 자유는 후생의 절대적 기초이며, 시장은 개인의 선택이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제도적 기초다."고 지적한다(Kotz, 2018: 40-41).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은 신자유주의를 '성장의 망상체계의 시녀'라고 지칭한다(Hamilton, 2011: 58) 하비(David Harvey)는 "모든 인간의 행동을 시장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고자"할 뿐만 아니라(Harvey, 2009: 17), 신자유주의화는 "모든 것들의 금융화(Financialization)"를 의미한다고 지적한다(Harvey, 2009: 52). 토머스 H. 에릭슨(Thomas Hylland Ericksen)은 "인류세의 신자유주의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연관된 몇 개의 영역들 안에서 일어나는 폭주 프로세스로 특징지어진다. ... 폭주하는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은 단연코 금융화다.”(Ericksen, 2019: 282). “신자유주의와 그 발전은 경쟁의 문제가 아닌, 권력과 돈의 상상을 초월하는 독점 및 중장집중화의 문제이다.”(Lazzarato, 2012: 217). 다음의 진술은 신자유주의가 지구온난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자유주의는 상품화와 자연의 파괴가 쉬지 않고 진행됨과 동시에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과 정부는 농어민을 생활터전에서 쫓아낸 후 무분별한 벌목과 목축지 조성, 상품작물과 바이오연료 재배, 어족자원의 남획 등을 일삼았다. 이에 더해 광물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탄광개발을 서둘렀고, 공업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유전과 가스전을 마구잡이로 개발해 나갔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익히 아는 대로 다양한 생물종의 대규모 멸종, 해양생태계와 육지생태계의 전면적인 파괴가 빚어졌다. 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 역시 송두리째 뿌리 뽑혔음은 물론이다. 자본주의나 계급사회 아래서 자연의 유린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그 폭과 깊이는 그 이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Lilley, 2011: 21. 강조는 본 연구자)

(2) 극단적 형태의 자본주의(Capitalism)

E. K. 헌트(E. K. Hunt)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에 항상 존재하는 세 가지 본질적인 특징으로 정의된다. 첫째는 어디에서나 금전적 거래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다. 그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면된다. 둘째, 자본주의에는 언제나 적어도 네 가지 사회경제 계급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부유한 자본가 계급, 소규모 자영업자와 독립 전문직 계급, 노동계급,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에 의존해 살아가거나 절도와 성매매 등 닥치는 대로 벌어들여 사는 빈곤 계급, 그리고 셋째,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누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모두 이윤 추구에 따라** 결정된다.”(Hunt, 2012: 34. 강조는 본 연구자). 한 마디로 자본주의는 “이윤의 획득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말한다.”(다음백과, ‘자본주의’ 참조). 문제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이윤의 획득의 과정에서도(道·常識)가 지나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 자본주의를 부르는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Parish Capitalism), 좀비자본주의(Zombie Capitalism), 카지노자본주의(Casino Capitalism), 카우보이자본주의(Cowboy Capitalism), 깡패 자본주의(rogue capitalism) 또는 벌처자본주의(Vulture Capitalism), 착취적 자본주의(Extractive Capitalism, Gomez-Barris, 2017: xvii), 전쟁자본주의(War capitalism, [Beckert, 2018: 24]),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 Naomi Klein)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 때문이다. 프레드 맥도프와 존 B. 포스터(Fred Magdoff & John Bellamy Foster)는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신승철은 아예 『탄소자본주의』라는 제목을 붙여 책을 냈다.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명백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속불가능하다. 1) 자본의 끝없는 축적 추구 때문에 이윤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산을 팽창시킨다. 2) 농업식량 시스템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양질의 충분한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여전히 불가능하게 한다. 3)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4) 한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 사이에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계속 강화한다. 5) 이 체제 고유의 기능과 작동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생태적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술적인 마법의 탄환을 추구한다. 6) 동료 인간 및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을 상실하게 하는 인간성을 조장하며 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한다.(Magdoff and Foster, 2012: 176-177)

(3) 극단적 형태의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란 쉽게 말해 “기업이나 금융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규모로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다음사전, ‘세계화’). 세계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해밀턴은 세계화의 본질이 성장과 소비자 본주의의 확산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세계화의 본질은 세계의 경제와 금융 네트워크가 촘촘해진다거나 기업들의 국제적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본질은 성장과 소비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설 새 없이 확산된다는 데 있다.”(Hamilton, 2011: 186). 그로벌리제이션(성장세계화, grobalization=growth+globalization)이라는 신(新)조어의 이면에 서도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의 성장 이면(裏面)에도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증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자연을 파괴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세계화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기업 간 경쟁은 격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상품을 더 싸게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고 공장을 지었으며, 원자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 무역과 경쟁 증가에 따른 에너지 및 자연 자원 및 소비 급증으로 인해 지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최배근, 2018: 27).

약간 옆길로 나가는 감이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에 크게 일조(一助)하였고 이들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경영하는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도 헌신하였다는 지적이다. “오늘날 지배 계층과 남반부 주민들 사이의 경제적 역학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다. 그런데 농업정책 면에서 이들 국제기구들은 유감스럽게도 거대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봉사한다.”(Ziegler, 2012: 156). 그래서 장 지글러(Jean Ziegler)는 이들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세계은행 등이 “묵시록의 기사”(Ziegler, 2002)와 같은 역할을 기아(飢餓)의 영역에서 감당했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Ziegler, 2012: 167).

3)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경영하는 글로벌기업들의 실천행태

(1) 글로벌기업(多國籍企業),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가치실현의 중심 거점

경제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배금주의적인 세계관은 (글로벌·다국적)기업이라는 형태[法人]로 나타난다. 성장 중심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들이 진두지휘하는 기업의 목표도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세계관인 ‘배금주의’에 진배없이 이윤의 추구[극대화]에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화와의 환경 속에서 글로벌기업(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의 형태로 업그레이드되어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이들 글로벌기업들은 현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적인 무역의 흐름을 지배한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글로벌 투자 리포트 2013』(Global Investment Report 2013)에 따르면, 재화와 용역의 거래로 이뤄지는 세계적인 가치 창출 사슬의 80%가 초국가 기업에 의해 결정된다.(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ir2013_en.pdf.; Werner-Lobo and Weiss, 2015: 18-19 재인용)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환경을 상품화하고 시장 논리를 적용하는 현상이 세계화와 함께 지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이끄는 것은 일부 초국적 기업들입니다. 초국적 기업들이 세계 전역에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채취하고 이를 이용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통·소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지구 곳곳의 환경을 돈이 되는 상품으로 바꾸고, 그 결과 지역 생태계는 광범위한 파괴와 교란을 겪게 됩니다(최배근, 2018: 138)

배금주의에 물든[“돈毒”오른] 경제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삶을 가능케 한 환경, 즉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이익 극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배금주의에 기반을 둔 성장제일주의(成長第一主義)라고 할 수 있다. 성장[최대 경제적 이익]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채굴화(採掘化), 금융화(金融化[商品化]) 그리고 과소비화·과잉생산화(過消費化·過剩生産化)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이들 개념들도 정확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중복 또는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채굴을 통해 과잉생산을 낼 수 있으며, 또 과잉생산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실천행태들이 극단적[過剩]인 모습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그래서 연구자들 일부에서는 ‘과열’(overheating)이나 ‘거대한 가속’(great acceleration)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이러한 행태(行態)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구체적 실천행태

(i) 과잉 채굴화(採掘化, Extractization)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채굴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지탱하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신체를 착취함은 물론 그들로부터 노동과 에너지를 뽑아낸다.(Gillespie, 2019: 171).

채굴 제국주의(Extractive Imperialism)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장은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채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채굴은 단순 토양의 오염뿐만 아니라 채굴의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여 그로 인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놓고,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에 크게 일조하게 된다. 문제는 오늘날 채굴은 과거의 채굴에 비해서 더욱 극단적 형태의 과잉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더 많은 온실가스의 배출과 더 많은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채굴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할까? “유럽연합의 보고에 따르면, 타르 모래에서 석유를 채굴하는 방법은 전통적 방법에 비해 온실가스의 방출이 25퍼센트 늘어난다.”(Hartmann, 2018: 40-41). “현재의 대규모 노천광 채굴(open-cast mining) 환경은 중장비로 훨씬 대량의 토석을 운반할 수 있게끔 발전하여, 목표한 자원을 추출하기 전에 해당 구역 전체의 자연적인 지질 표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한다. 캐나다 앨버타 주의 악명 높은 오일샌드 경관은 여기서 강렬한 사례다. 활동가들은 ‘유독한 희생지대’(toxic sacrifice zone)라고 부르는 이곳-잉글랜드 면적의 원시 북방침엽수림-에서는 지질 전체를 중장비로 깊숙이 굴착한 뒤 처리를 거쳐 탄화수소 혼합물(원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환경 비용을 치르고 있다”(Graham, 2019: 429; Nikiforuk, 2010 참조, 수압파쇄법[프래킹, fracking]의 경우 참조).

(ii) 과도한 금융화(金融化, financialization 또는 전 지구적 상품화)

상품화(commodification)는 재화, 서비스, 기능, 자원 등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칭한다. 상품화라는 개념은 ... 이전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던 것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Gillespie, 201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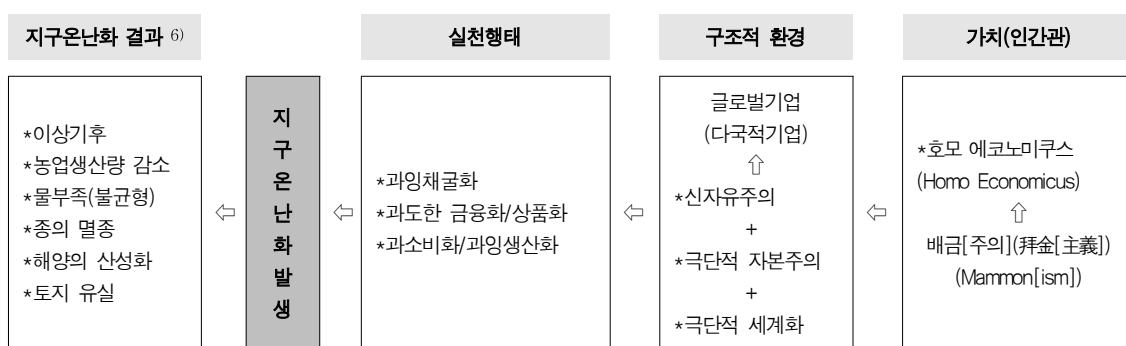
금융화[전지구의 상품화 global commodification]의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발생케 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킨다.(Howe, 2011: 308-337, “9장. 자본주의 생존의 무기, 상품화”. 308-337 참조). “인류세의 신자유주의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연관된 몇 개의 영역들 안에서 일어나는 폭주 프로세스로 특징지어진다. ... 폭주하는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은 단연코 금융화다.”(Ericksen, 2019: 282). 인류세를 대체하는 용어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플랜테이션세(世, cene, plantationocene)라는 명칭에서 금융화의 사례가 어떻게 온실가스의 증가와 더불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지 살펴볼 수 있다. 국경선이 없어진 세계를 할거하는 금융자본은 세계 각지에서 그 지역의 토지를 원주민으로부터 약탈(land grab)한다. 그리고 그 토지를 대단지 환금작물이나 농산연료(바이오연료) 재배지로 바꾸거나, 소와 같은 동물을 사육하는 거대한 농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바로 플랜테이션화하는 것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의 산림을 벌목을 하고 그곳에 단일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벌목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CO2를 발생시키고, 살림을 훼손함으로써 나무들의 CO2 흡수를 방해한다. 더 나아가 생산되어지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 즉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소비한다. 그리고 이를 세계 곳곳에 판매하기 위해 장거리 운송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발생케 되는 것이다.

(iii) 과잉 생산화와 과소비화(過剩生産化·過消費化)

광고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라고 권장함으로써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을 향해 ‘적게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고쳐 쓰자(recycle)’고 외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거대한 광고 산업이 ‘더 많이 쓰고(increase), 팽개치고(discard), 내버리자(dump)’을 선동하고 있다.(Hamilton, 2011: 148).

오늘날의 대부분의 생산물은 화석연료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그래서 carbon economy 라고도 한다). “석유식품”(petrofood)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오늘날의 먹을거리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해 있다. 오늘날 제품들이 원료나 생산과정과 유통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생산[流通]=온실가스발생=지구온난화’, ‘생산[流通]증가=온실가스 발생증가=지구온난화 증가’의 구조라는 점이다. 과잉생산은 더 많은 화석연료의 사용, 더 많은 온실가스의 생산, 지구온난화의 촉진의 형태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새 상품[新商]을 사도록 유혹한다는 것이다 [과소비조장=온실가스 증가] 과소비로 인해 구식이 된 물건들은 해외 빈국[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으로 폐가전제품이 수출되어지고[유통(增加)=온실가스발생(增加)], 그곳에서 원주민들에 의해 해체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케 한다.[解體過程=溫室가스 發生]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건강상의 해악을 또한 가져다주기도 한다.[原住民健康惡化].

그림: 지구온난화의 기저에 존재하는 가치와 그 실천행태



내용을 요약해 보자. 지구온난화와 그와 관련된 인류세 사회문제의 기저에 배금주의(Mammonism)로 무장한 경제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 호모 에코노

6) 참고로 리처드 H. 로빈스(Richard H. Robbins)는 자신의 책, 『세계문제와 자본주의 문화: 생산·소비·노동·국가의 인류학』(Global Problems and the Cultural of Capitalism)에서 시장요소들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들을 [표]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 표: 시장요소와 부정적인 외부효과 | |
|--------------------|--------------------------------|
| 시장 요소 | 일어날 수 있는 시장 외부효과 |
| 노동비용 | 저임금, 노예, 가난, 질병, 기아, 소외 |
| 원재료 채취 | 주거지 파괴, 오염, 군사확장 |
| 수송과 유통 | 사회기반시설 구축, 환경적 영향, 오염 등 |
| 폐기물 처리비용 | 오염, 질병, 주거지 파괴 |
| 제조와 생산비용 | 환경오염, 자원 고갈 |
| 광고와 시장 확대 | 어린이 노동착취, 상호 호혜관계에서 시장관계로 전환 등 |
| 시장친화적 법률과 규제 유지 | 부패, 군사확장, 정치과정의 왜곡 등 |

자료: Robbins, 2014: 282.

미쿠스가 진두지휘(陣頭指揮) 하는 글로벌 기업(다국적 기업)이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글로벌 기업들이 현실에서 배금주의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극단적 형태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더 나아가 세계화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채굴화와, 금융화(상품화), 그리고 과잉생산과 과소비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면 할수록 온실가스는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부수적 피해 등이 더욱더 가중되어 가는 것을 살펴보았다.

2 인류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연구자들의 제론

그렇다면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인류세 문제를 방지[遲延]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 먼저 주의해 보기로 하자.

기후 변화의 현실을 보고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뿐이라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농민 직영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자동차 운전을 그만하자고 결심한다. 하지만 기후 위기를 향해 치달아 가는 시스템, 즉 “나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며 따라서 머지않아 작동을 멈출 이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잊고 만다. 물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 역시 해법의 하나이므로 자신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노라고 자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한쪽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셈이다.(Klein, 2016: 20)

위의 클라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하는 노력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오늘날 온실가스의 증가와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개인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구조적(地球村構造)인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먹을거리의 문제도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강상우, 2019 참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이 지구적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운 이해일 것이다. 구조에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더 도움이 될지 모른다. 틀을 먼저 바꾸고, 개인들에게 그 틀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와 더불어 리처드 H. 로빈스(Richard H. Robbins)가 허먼 E. 데일리(Herman E. Daly)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 머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나는 데일리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잘 요약했다고 생각한다. ‘마음의 변화, 거듭난 정신, 참회라는 보약, 이런 것들이 모두 종교적인 용어인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근본 법칙의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 변화다’”(Robbins, 2014: 761 재인용). 인류세의 문제들이 종교적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종교적 문제라는 것은 바로 그 문제가 개인의 세계관(價値)과 직결된 문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더 쉽게 말하자면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치[世界觀]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이다.(이승은·구문현, 2019: 45 참조)

1)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려는 연구자들의 기저 가치[세계관]와 실천행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온실가스의 감소와 억제 등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연구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는가.(물론 차후에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지구온난화의 억제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문제와 인류세가 가지고 있는 병폐들에 대한 외국의 저자들이 쓴 저서들을 번역한 한국어 제목에서 이들 연구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저서들의 한국어 번역본의 명칭들과 더불어 그 저서들이 지니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 진다.

먼저 실비 뮌글리에 & 브누아 브로이아르(Sylvie Muniglia and Benoit Broyart)가 함께 저술한, 『경제성장이라는 괴물』(VERS UN MONDE ALTERNATIF)이나, 세르즈 라투슈(Serge Latoude)의 『탈성장사회: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Pour sortir de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Voix et voies de la décroissance), 클라이브 해밀턴의, 『성장숭배: 우리는 왜 경제성장의 노예가 되었는가』(Growth Fetish) 등은 책들의 제목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 책들은 성장제일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위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지적한다. 특히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은 ‘페티쉬’(fetish)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극단적인 성장중심주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더 나아가 그 해결책으로서 탈성장(degrowth)을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월드워치기구(Worldwatch Institute)에서 편집한, 『소비의 대전환: 2010 지구환경보고서』(State of the World 2010)와 J. 루이스(Justin Lewis)가 저술한 『소비 자본주의를 넘어서: 뉴스와 광고는 상상력을 어떻게 제약하는가』(Beyond Consumer Capitalism: Media and the Limits to Imagination)는 소비주의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과잉소비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광고 등이 인간의 소비에 어떤 관여를 함으로써 소비를 조장하는지. 특히 카트린 하르트만(Kathrin Hartmann)은 자신의 책, 『위장환경주의: ‘그린’으로 포장한 기업의 실체』(Die grüne Lüge: Weltrettung als profitables Geschäftsmodell)에서 소비자들에게 ‘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의 사례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러한 기업들의 행동에 경계[分別]할 것은 주문한다. 비록 기업들이 환경보호를 외면적으로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과 지구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볼 때에 생태계에 큰 위험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말 그대로 기업들은 기업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환경보호라는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고 가려서 소비하라는 주문이다. 토머스 H. 에릭슨(Thomas Hylland Ericksen)의 『과열: 폭주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Overheating: An Anthropology of Accelerated Change)이나, 힐러리 프렌치(Hilary French)에 의해서 편집된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Vanishing Borders: Protecting the Planet in the Age of Globalization)는 세계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자본의 17가지 모순: 이 시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Seventeen Contradictions and the End of Capitalism)에서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존 B. 포스터(John Bellamy Foster)는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Ecology Against

Capitalism)에서 구체적으로 생태계에 자본주의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프레드 맥돌프와 존 B. 포스터의 공저인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What Every Environmentalist Needs to Know About Capitalism)은 자본주의가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에베르 켐프(Herve Kempf)의 『지구를 구하려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라』(Pour sauver la planete, sortez du capitalisme)에서는 탈자본주의화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다. 사샤 릴리(Sasha Lilley)에 의해서 편집된, 『자본주의와 그 적들: 좌파 사상이 17인이 말하는 오늘날 자본주의』(Capital And Its Discontents)는 자본주의가 지닌 모순에 대한 좌파 사상가들의 글을 소개하고 있다. 파블로 솔론, 크리스토프 아기통, 주느비에브 아잠, 엘리사벳 페레도 벨트란(Pablo Solon, Genevieve Azam, Christophe Aguiton, and Elizabeth Peredo Beltran) 등이 공저한,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Systemic Alternatives)에서는 세상의 상품화를 막고 참다운 지구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탈세계화(Deglobalisation)와 검소한 풍요의 사회로 가기 위한 탈성장(Degrowth), 가부장제와 생태위기에 도전하는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와 인간과 자연이 평등한 지구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어머니 지구의 권리(The Rights of Mother Earth)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탈배금주의 시도와 호모 에코노모쿠스의 민낯 드러내기

성장우선주의로 인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가속의 기저에는 끝없는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존재하였고, 글로벌기업 등의 경영으로 그들의 가치를 추구하였다. 무한한 부의 절대적 추구라는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글로벌기업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지금 지구온난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경제적 인간이 주도해온 결과들에 대한 많은 부정적 문제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경제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몰락 가운데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끊임없이 찬양하는 행위는 우리를 이 시스템에 복종하도록 만들고 체제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자본주의 최후의 저항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 인간 역시 끝없는 축적의 신화에 따르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 속에서 몰락하는 중이다.”(Fleming, 2018: 65).

(2) 과거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성: 사회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생태계의 파괴 등을 경험하면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같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는 다른 사상들로부터 도전받았다. 심층생태학이나 사회생태학, 그리고 생태여성주의와 같은 주장들이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생태계의 위기에 직면하여 서구에서는 다양한 사상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은, 온 인류와 자연이 평등한 존재이며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심층생태학’(deep ecology), 지구를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인식하고 이 지구에 영성적 통찰을 요청한 ‘가이아 가설’(Gaia hypothesis), 그리고 인간 사회의 불의한 구조가 자연의 착취로 이어진 만큼 인간 사회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생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생태학’(social ecology) 등”(장윤재, 2009: 184)이 바로 그러한 부류에 해당한다.

인류세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클라이브 해밀턴은 3가지로 분류한다. 에코모더니즘(Ecomodernism), 포스트 휴머니즘(Post-humanism), 신-인간중심주의(新人間中心主義, The New anthropocentrism)가 그것인데 해밀턴은 ‘신인간중심주의’를 인류세와 관련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 힘을 무절제하게 사용해 왔으므로 힘의 남용을 염려하면서 훨씬 더 현명하고 신중하게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내가 ‘새로운 인간중심주의’(the new anthropocentrism)라고 일컫는 개념을 도출한 이들이 바로 이 마지막 부류다.”(Hamilton, 2018: 72. 강조는 본 연구자). 해밀턴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인간이 중심이긴 하지만 신인간중심주의는 이전의 인간중심주의에 깊은 뿌리박힌 착취와 통제 같은 태도와는 선을 긋는다. 우리보다 훨씬 큰 무언가에 책임을 돌림으로써 인간 행위자의 책임을 피하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중심주의적이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인간중심주의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했던 내 말의 진의다.”(Hamilton, 2018: 93) 호모 에코노미쿠스 자체에서도 자기 반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종(亞種)이 출현하고 있다. 바로 ‘사회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수준을 넘어서 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같은 타인의 삶과 어려움에 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하는 헌신적인 윤리적 주체이자 사회적 책임의 주체다. 요컨대 ‘사회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다(Lessenich, 2011)”(김주환, 2017: 226. 강조는 본 연구자)

(3) 극단적 형태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거부와 수정하기

지구온난화에 대한 억제와 방지를 위한 연구자들의 기저에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 등에 대한 거부와 수정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는 이들 중에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수정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병폐가 극단에 도달하도록 손을 떼고 두고 보자는 이들까지도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끝을 보자는 이들’은 일명 가속주의자[Accelerationists]로 불려지고 있는 이들이다(Fleming, 2018: 354). 피터 플레밍은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가속주의자’(accelerationist)적인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는 철학적 관점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 가속주의자들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어떤 형태의 저항이나 반대도 모두 흡수해버릴 정도로 전체화(全體化)되어버렸다고 전제한다. 심지어 자본주의는 저항을 바탕으로 더욱 번성하는 체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일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대신 우리는 자본주의에 내재된 파괴적 원리를 더욱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 체제의 발전 과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본주의 자체가 ‘폭발’하고 해체되어버린다면, 우리가 더욱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맑은 지평선이 나타날 것이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비평가 중 하나인 스티븐 샤비로(Steven Shaviro)는 자신의 저서, 『노 스피드 리밋』(No Speed Limit)에서 이렇게 썼다. ‘이곳에서 빠져 나갈 방법은 끝까지

지 가는 길밖에 없다. 다시 말해 글로벌화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최후까지 몰아붙임으로써 극단적이고 기이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관한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면 언젠가 이 체제는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 다른 곳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Shaviro, 2015: 2]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시스템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데 중점을 두어, 스티븐 슬레이터 같은 수많은 사람이 ‘폭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Fleming, 2018: 354-355)

세계화에 대해서도 탈세계화(degloabalization)나 대안적세계화(alterglobalization)⁷⁾ 등의 수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탈세계화라는 말을 처음 고안한 것은 월든 벨로[W. Bello]와 남반구 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이다. 그들의 목적은 지구적 경제로부터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민경제가 악화되지 않고 강화되도록 세계 경제와 정치 체제의 구조를 바꾸도록 촉발하는 것이다. 탈세계화는 민중과 국가들의 의사결정 역량을 빼앗아가는 자본의 논리와 이른바 경제적 합리성에 지배되는 통합과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탈세계화한다는 것은 민중, 국민, 지역공동체와 생태계의 필요에 바탕을 두고 세계의 통합과정을 구상하고 건설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한다.”(Solon, 2018a: 186) “오늘날의 문화적·사회적 변동을 진지하게 다루는 연구에서 ‘네트워크화된 자본주의 세계’는 논의의 근거이자 배경이 된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지배에 반대하는 운동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운동을 펼친 사람들은 초기에는 ‘반-세계화주의자’(anti-globalisiers)라 불리었으나, 그들 자신들은 ‘대안적 세계화주의자’(alterglobalisers)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이는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인 형식일 뿐 상호연결성은 아니라는 의미다.”(Ericksen, 2019: 79)

참고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가치관의 확장인 약탈적 형태를 지닌 일부 글로벌기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기업을 요구하기도 한다. 세르즈 라투슈(Serge Latoude)는 “절충적 기업”에 대해서 말한다. 라투슈가 말한 “절충적 기업이란 증여의 정신과 사회 정의의 추구에 의해 시장의 탐욕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기업이다.”(Latoude, 2014: 72). 탐욕과 경제적 이익, 부의 축적이 제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성격을 지닌 기업의 형태가 요구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2) 성장주의와 금융화, 과소비와 과잉생산 등과 같은 과거 실천행태에 대한 반성과 수정하기

(1) 탈-성장(De-growth)

탈성장을 추구한다. 탈성장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성장’(negative growth)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탈성장이라는 이윤 추구의 숭배에 대한 거부로 “‘포스트성장’(post-growth), ‘비성장’(a-growth), ‘반성장’(anti-growth), 또는 이반 일리치의 표현으로는 ‘성장 중독 깨기’”와 같은 의미임을 지적한다.(Azam, 2018: 74). 세르즈 라투슈(Serge Latoude)에 의하면, “‘데크루아

7) “연대적 지구화”(Globalization based on solidarity)에 대해서도 참조하라. 최경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연대적 지구화의 모색” 『기독교사회윤리』50. (2021). 305-339 참조: <http://www.riss.kr/link?id=A107829532>.

상스'(decroissance=탈성장)이라는 말은 경제성장 우선 사회, 즉 성장을 위한 성장 이외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경제에 의해 구축된 사회와의 결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고안된 도발적인 슬로건"이라는 점을 지적한다(Latoude, 2014: 59). 탈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한한 성장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존재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주느비에브 아잠(Genevieve Azam)은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되는 비가역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무한한 물질적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루마니아 경제학자 니콜라스 게오르게스쿠-뢰젠(N. Georgescu-Roegen)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도 한다.

“루마니아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게오르게스쿠-뢰젠[N. Georgescu-Roegen]의 작업을 열역학과 생명체의 법칙이 경제 및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는 것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무한한 물질적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제라는 것 또한 생명체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이므로 생명경제일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가 오염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를 엄청나게 양산하고 또 잡아먹고 있는 만큼, 설령 리사이클링을 하더라도 자원의 채굴과 변형이 갖는 엔트로피적 측면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기술은 없을 것이다.”(Azam, 2018: 72).

또한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오늘날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에릭슨은 이중구속(二重拘束, double bind)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이중구속(Double Bind)은 일종의 자기반박(self-refuting)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 인류세의 시대, 신자유주의적 성장을 폭주하는 현대사회의 근본적 이중구속은 성장과 지속가능성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기란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중산층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느끼며,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식품을 사먹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업 때문에 혹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종종 비행기 여행을 하고, 전적으로 탄소경제(Carbon Economy)에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큰 스케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국 정치인과 비즈니스 리더들은 여기저기에서 지속가능성과 기후 정책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한다.”(Ericksen, 2019: 65-66).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가중을 피하기 위해서는 탈성장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된다. 한 마디로 라튀슈 교수가 강조한 바로 ‘축소’가 필요한 것이다. “세르주 라튀슈 교수는 이 학회, 저 학회를 돌아다니며 성장사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파한다. 그러면서 그는 데크루아상스라는 인위적 조어(독일어로는 대략 ‘축소 성장’을 의미한다)를 도발적 구호로 간주한다. 그의 대항 프로그램은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축소’다. 환경오염, 낭비, 과잉생산, 과도한 소비의 축소다.(Reuss und Dannoritzer, 2015: 247)

(2) 탈-금융화(De-financi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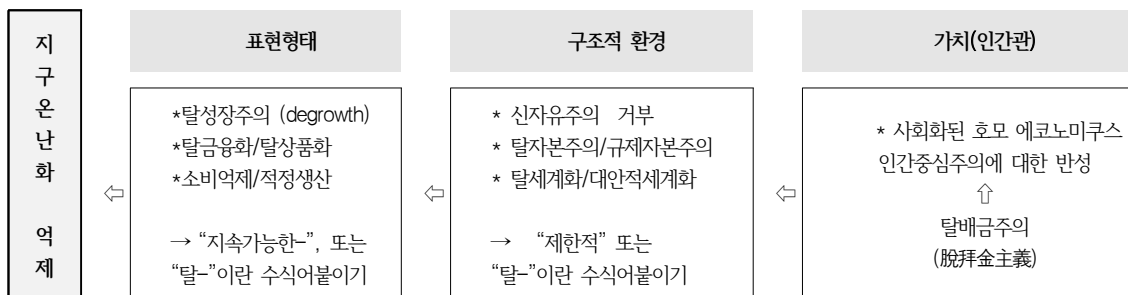
탈금융화는 탈상품화를 지향한다. 파블로 솔론(Pablo Solon)은 홀로세의 위기, 즉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상품화를 지적한다. “홀로세(Holocene)의 종말을 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간 활동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시스템(자본주의, 생산주의, 채굴주의, 금권주의, 가부장제, 인간중심주의)이다. 이것이 인간 생명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비인간 생명을 단순한 상품이나 자원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Solon, 2018b: 215) 솔론은 “탈세계화(Deglobalisation): 세상의 상품화를 막고 참다운 지구공동체를 건설하자,”(Solon, 2018a: 185-210)라는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탈세계화의 슬로건은 자기 나라, 자기 지역으로 웅크려 끼리끼리 잘살자는 제안이 아니다. 이미 지구촌이라 말하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다국적기업과 초국적기업 만 자유로운 공간이 되는 시장화의 길을 벗어나자는 제안이다. 결국 지구촌의 모든 사람과 지역과 자연이 상품이 되는 길을 벗어나 각자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참다운 지구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자는 것이다.”(김신양, in Solon, Azam, Aguiton, and Beltran, 2018: 8; 김신양, “웁긴이의 말”. 6-9 참조). 일부 연구자들 중에 ‘카본 러시’(carbon rush, [ex, 탄소세, 탄소배출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생태계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것 또한 탈상품화와 탈금융화적 사고와도 어느 정도 관계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득을 평가할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왔다. 가치는 화폐단위, 물리단위, 지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화폐단위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지만, 생태학자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생물물리학 단위 같은 화폐단위가 아닌 단위를 선호한다.”(Worldwatch Institute, 2012: 446).

(3) 과소비억제와 적정생산

과소비를 억제하고, 적정량의 생산을 추구한다. “과잉생산=온실가스 증대=지구온난화 가증”, “과소비=낭비 증가=산업·음식쓰레기 증가=온실가스 증대”, “운송[장거리유통]=온실가스 증대”, “해외여행의 증가=운송비 증가=온실가스 증대”, “육식의 증가=온실가스 증가”, “글로벌푸드=온실가스 증가”라는 것을 알기에 과소비를 억제는 단순한 삶을 살기를 권하고, 소비를 억제하는 삶과 매우 단순한 삶을 통해서 과잉생산에 저항할 것을 연구자들이 권한다. 그리고 음식에 관한 정보를 이해할 것을 강조한 리터러시(Food literacy)라든가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일반인들이 갖추기를 요구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적 사고에 젖은 기업들의 광고 전략[greenwashing, fairwashing]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의 교육이 필요함에 대해 강조한다.

그림: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한 노력의 기저에 존재하는 가치와 그 실천 형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려는 제 연구자들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들은 탈배금주의적 경향과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반성적 자세를 지니고 과거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성장을 도와주었던 제도인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거부와 수정을 가하였다. 성장주의가 아닌 탈성장화를 추구했고, 금융화가 아닌 탈금융화를 지향했으며, 과소비와 과잉생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소를 꾀하고 있었다.

3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가치와 그 실천

지구온난화를 발생케 하는 기저에 어떤 가치가 존재하는지 또 그것이 어떤 행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나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가치에 근거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도 보았다. 여기서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지구온난화의 억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가치와 실천에 대해서 말이다.

1) 논의에 앞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지구온난화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환경오염과 자연에 대한 착취의 주범은 결코 종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밝히고 싶다. 장운재 교수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의 세계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종교적 세계관의 결핍이다.”(장운재, 2017: 232).⁸⁾

또한 “세계 종교들 가운데 ‘탐욕스러운 자는 복이 있다’(Blessed are the greedy)고 가르치는 종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라고 말하는 맥패이그”의 지적처럼.(종교인대화모임 엮음, 2015: 358).⁹⁾ 그러므로 과거 『사이언스』(Science)지를 통한 린 화이트 주니어(Lynn White Jr)의

8) “아마도 십계명의 보다 깊은 의미는, 우리의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야심, 개인적 증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말라는 뜻일 것이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신이 그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땅이 탐날 때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라고 한다. 우리가 세 번째 십계명을 보다 성실하게 지키지만 해도 세상은 훨씬 나은 곳이 될 것이다. 이웃과 전쟁을 하고 싶거나 그들의 땅을 뺏고 싶은가? 제발 거기서 신을 제외하고 다른 핑계거리를 찾기 바란다.”(Harari, 2018: 298-299).

9) 소비에 대해서 각 종교들이 자신들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참고하라.

| 소비에 대한 몇 가지 종교적 시각 | |
|--------------------|---|
| 신앙 | 시각 |
| 바하이 | “모든 일에서 중용이 바람직하다. 어떤 것이 도를 넘어선다면, 이는 곧 악의 근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하알라 교전』Tables of Bahau'llah) |
| 불교 | “이승에서 자신의 이기적 열망을 극복하는 자는 연꽃의 물방울과 같이 슬픔도 자신에게서 서서히 사라지리라” (『법구경』336) |
| 기독교 |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6:24) |
| 유교 |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논어』Confucius 11편 15장) |
| 힌두교 | “모든 욕망을 던져버리고 아무런 갈망 없이 행복 하는 사람, 내 것과 나라는 생각이 없는 자는 평안에 이르나니” (『바가바드기타』Bhagavad Gita 2:71). |
| 이슬람 |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그러나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낭비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꾸란』7:31). |

기독교를 향한 비판은 번지수가 벗어난 잘못된 평가[맞더라도 절반만 맞는 평가]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영국의 역사가 고(故)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를 주장하는 기독교의 가르침, 특히 창세기 1장 28절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신의 명령 때문에 지구에 대한 인간의 약탈이 시작되었다”는 지적 또한 종교적 본질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장운재, 2009: 327-328). 그리고 크리스틴 스웬슨(Kristin Swenson)이 자신의 책, 『가장 오래된 교양』(Bible Babel: Making Sense of the Most Talked about Book of All Time)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할 것 같다. 성경이 아닌 해석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만난 적이 있지 않은가? 한 사람이 ‘에 ... 성서에 의하면 ...’ 하면서 어떤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 상대방은 곧바로 ‘그렇지만 또 성서에 의하면 ...’하면서 반박한다.”(Swenson, 2014: 21).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은 비록 연구자들의 주장에 텍스트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텍스트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는 특별한 분별력을 지닌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록 그 텍스트를 인용[또는 解釋]하고 있는 사람이 그 텍스트에 대한 권위자적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텍스트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제임스 와트라는 내무장관은 ‘왜 레이건 행정부에 환경정책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데 왜 그런 정책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장운재, 2017: 23), 또는.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인 폴웰(Jerry Falwell)은[이] ‘지구 온난화라는 신화’라는 설교에서 ‘모든 신자들은 이 ‘지구교’(earthism) 숭배자들에게 속지 말 것’을 강조하였[던].” 것처럼 말이다(Swenson, 2014: 173. [] 본연구자 첨가).

2) 매머니즘(Mammonism)에 저항하는 청지기적 인간(Homo Oikonomos)됨의 회복의 필요성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지향하는 성장의 원리는 그 속에 하나의 마귀를 내포하고 있다. 즉 그것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상품적 가치로 환원시킨다. 자연환경은 생산에 필요한 자원 내지 재료들을 보유한 창고로 간주된다.”(김규진, 2006: 65).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욕심의 산물이다. 지구온난화의 기저에는 이익의 창출이라는 맘몬(Mammon, Μαμμων; 물질의 신, 재물[눅 16:13])에 대한 숭배가 숨어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공생애(public life) 때에 제자들

| | |
|-----|------------------------------------|
| 유대교 |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잠언30:8). |
| 도교 | “자신이 풍족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풍요롭다”(『도덕경』). |

자료: Gardner, in Worldwatch Institute ed., 2010: 66*

*Baha'i Reference Library, "World peace," at reference. bahai.org/en/bic/SB/sb-13.html#fr5; Buddhism, Confucianism, Taoism, and Hinduism form Center for a New American Dream, "Religion and Spirituality," at www.affluenza.org/cnad/religion.html.; Christianity and Judaism from The New Jerusalem Bible (New York: Doubleday, 1990); Islam from Islam Set, "Environmental Protection in Islam," at www.islamset.com/env/section4.html.

에게 맘몬에 대해 저항할 것을 얘기했으며, 예수의 제자인 바울 사도 또한 맘몬을 경계할 것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탐심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골3:5)라고 꼬집었다. 즉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의 신적 힘을 경험하고 그것에 점차 마음을 빼기면 자유는 사라지고 숭배와 복종 관계에 가까워진다.”(Keller, 2017: 17)

앞서 보았던 것처럼 성장이라는 기저에 있는 맘몬에 대한 숭배가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인지했기에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들이 맘몬의 숭배라는 성장만능주의에 대항하여 탈성장을 그렇게도 요구하였던 것이다. 탐욕적인 과잉채굴과 과잉생산과 과소비 등에 대한 축소와 자제를 요구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인간형은 청지기 인간(Homo Oikonomos; 또는 Homo Epitropos, 그리스어 επιτροπος=Steward, Overseer, Daniel P. Castillo는 Gardener[Homo Hortulanus]를 사용한다[Castillo, 2021: 167])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극단적인 물질[利益]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닌 ‘선한 청지기’(kalos oikonomos) 말이다. 인간중심주의적인 인간이 아닌 하나님[神] 중심적인 인간인 것이다. 충실한 하나님의 집사[執事[청지기], steward of God]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모 오이코노모스는 자본과 이익의 논리가 아닌 ‘목자윤리’(the ethic of stewardship, [청지기 윤리·집사 윤리])(Attfield, 1997: 170)에 성실히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청지기인 오이코노모스(oikonomos, οικονος)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집, οίκος)를 하나님의 법(律法, νομος)에 따라서 잘 관리하는 삶(oikonomia, οικονομια, economics)을 실천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3) 호모 오이코노모스(Homo Oikonomos)가 지녀야 할 가치

(1)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인정하기

“여기가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라는 생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Mann and Toles, 2017: 5).

청지기인 호모 오이코노모스는 다음과 같은 사고를 지녀야 한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세계[家]라는 사실이다. 장윤재 교수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이 생태계를 보통 ‘자연’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기독교적으로 그것은 자연(自然, nature),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즉 창조세계(The Creation)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환경에 눈떠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이기 때문이다. (장윤재, 2017: 19) 이 모든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진정한 소유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미 그러나 아직”(Already but not yet).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 곳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이 얘기했던 것처럼

D-Day(Destination Day)이 이미 실현되었지만, 아직 V-Day(Victory Day)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V-Day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parousia)과 함께 도래한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이곳]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지구[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N. 톰 라이트(Nicholas Thomas Wright)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점을 지적한 것처럼 말이다. “빌립보서 3장에서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실제로 교회 자체가, 천국의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Wright, 2009: 177).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하고 기도하지, ‘우리가 한때 땅으로 도망쳤던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Wright, in Borg and Wright, 2001: 306)는 것이다. 우리가 휴거(携擧)하여 하늘 위에 떠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하나님의 都城]이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이 땅으로 오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곳 지구를 더욱더 잘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기대하면서(부모님이 밤에 돌아오기 전까지 나의 누이들은 밥을 해서 동생들인 우리에게 밥을 먹였고,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 물론 우리의 숙제도 지도했었다.)

(2) ‘선’한 청지기 윤리에 충실한 삶(Kalos Oikonomos)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개정개역).

앞에서 린 화이트 주니어(Lynn White Jr)와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 유(類)의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하고 다스리라”에 대한 이해가 성경 전체의 이해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장윤재 교수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 땅을 ‘정복하고’(kabas), ‘다스리라’(rada)는 말은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일하고 봉사하고 지키고 돌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성서에 있는 두 번째의 창조 이야기, 즉 에덴동산의 이야기(창2:4-3:24)를 보면, 인간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땅을 경작하는 겸손한 농부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아담’(Adam) 즉 인간을 ‘아다마’(Adama) 곧 흙을 재료로 창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농부’로 그리고 아다마를 ‘농지’로도 번역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농토에서 농부를 지은 것이다.) 에덴동산에서 농부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아니라 ‘경작하라’(abad)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땅에 대한 인간의 소유와 지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인간의 돌봄이다. 인간은 생태계의 주인이 아니라,

겸손한 참여자요 관리자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본래의 성서적 인간관이다.”(장윤재, 2009: 328. 강조는 본 연구자). 전현호 교수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땅을 정복하여라’는 히브리어 원문 카바스(kabas)와 ‘모든 짐승을 부려라’는 라다(radah)는 당시 근동지방의 왕이 자신의 영토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안녕을 위한 책임의식 아래 지배하고 통치했던 것과 정복과 지배의 대상을 보호해야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 짓밟아 파괴하고 죽여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짓밟아 파괴하고 죽여 없애버리고 나면 지배할 대상조차 없어지고 말기 때문이다.”(조현호, 2011: 37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2:15).

창세기 2장 15절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다. “존 블랙(John Black)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다 직접적인 논점을 끌어내는데, 그는 인간의 지배를 전제주의가 아니라 제한된 신탁과 책임 있는 위임통치로 해석했다. 야훼(Yahwist)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고 그것[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다’라는 것을 결부시켜 피조물을 설명한다. 블랙은 ‘다스리다(dress)’의 의미를 즐거움과 이로움을 위해 ‘경작하다’(till)의 의미로, ‘지키다’는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다’의 의미로 각각 해석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자연 피조물을 돌보고, 블랙이 지적했듯이 먹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의 원천으로(창2:9) 그것을 보존하도록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이다.”(Attfield, 1997: 79).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식을 준 지구를 약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한다(Attfield, 1997: 95). 선량(善良)한 관리자에게는 ‘약탈’이나, ‘과잉’, ‘과열’, 또는 ‘폭주’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모름지기 선한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뜻(God's Will)을 좇는 것만이 존재할 뿐이다.

(3) 지구온난화를 조장한 환경과 실천행태에 저항하기와 거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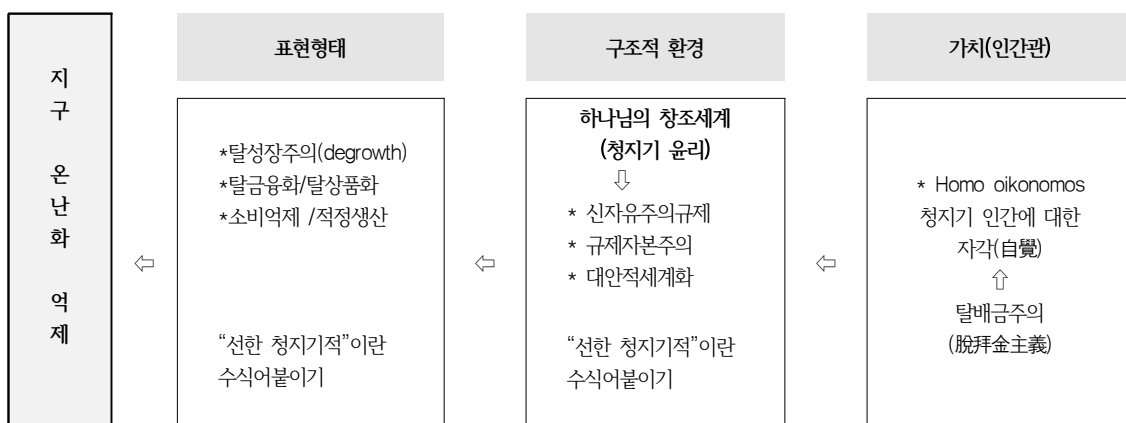
“오늘날 서너 개의 큰 경제체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취하겠는가? 사실 성경은 어떤 특징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암시하는 바는 없다. 기독교 진리에 딱 들어맞는 경제구조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한다고 해도 그 체제가 기독교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다.”(Ellul, 2010: 35).

“만약 탄소소비를 줄이려고 한다면 성과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 성공주의의 속도전을 멈추어야 한다.”(신승철, 2018: 84-85)

자크 엘룰(Jacques Ellul)의 지적처럼 기독교에 딱 맞는 경제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와 구조는 완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당(宜當) 언젠가는 타락(變質)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기독교세계관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불안정한 인간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론(理想)과 합치되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독교세계관이 캐논(Canon, 尺)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것들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선한 길로 가도록 유도할 뿐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성장시키고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경제적

사회적 환경인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에 대해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거부하고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실천행태로 취했던 채굴화, 금융화(상품화)와 과잉생산 및 과소비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수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의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려고 하는 제 연구자들의 태도와 실천에 대해서 공감[同意]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면, 이 경우에는 연대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탈성장화와 탈금융화, 그리고 과소비와 과잉생산 등의 축소[抑制]에 대해서 말이다. 참고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자발적인 소박함일 것이다. “자발적인 소박함(voluntary simplicity)은 더 깊이 있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돈, 소유욕, 탐욕의 추구로부터 이탈할 것을 지지하는 아주 오래된 철학이다. 즉 더 큰 내면의 부를 위해 외적인 부를 제한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부의 추구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박함을 ‘좋은 삶’의 핵심요소로 간주해왔으며, 인간 역사에서는 성 프란시스코(St. Francis of Assisi)와 간디(Gandhi) 같은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종교적, 정신적 이상이기도 했다. 오늘날 자발적인 소박함은 탈소비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과 행복을 위한 운동이 되었다.”(Worldwatch Institute ed., 2010: 354).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청지기는 분별력(分別力)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신앙에서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하는 것처럼, 삶의 각 영역에 분별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일종의 문해력(literacy)을 지녀야만 한다. 예로 들어 푸드 리터러시(food literacy)를 지님으로 올바른 음식소비를 함으로써 탄소가스 발생의 최소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지님으로 잘못된 광고의 홍수로부터 과소비의 예방과 더불어 선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각 분야에 대한 리터러시의 함양(涵養)만이 이들의 포획(捕獲, captivity)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림: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가치와 그 실천 형태



내용을 요약해 보자.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지구온난화의 억제를 위한 가치와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선한 청지기 정신과 규범을 좇은 호모 오이코노모스에 기초하고 있으며, 배금주의(매머니즘)에 대항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선한 관리자로서의 삶을

실천해야만 한다. 특히 지구[이 곳]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임하는 곳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까지 더욱더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려고 하는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실천방법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

III 나아가며

1 요약하기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피터 호턴(Peter Houghton) 등과 같은 연구자들은 보여준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식량생산량 감소, 물 문제, 종의 멸종, 해양의 산성화, 토지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기저에는 무엇보다도 배금주의라는 우상[mammon]의 숭배가 있었고, 경제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mammon의 숭배를 제일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채굴[掠奪]과, 모든 것을 금전과 상품의 가치로 환원하는 금융화와 상품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잉생산과 과소비가 팽배했기 때문에 지구상의 온실가스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것이다.(The great acceleration)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여러 연구자들은 무엇보다도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숭배하는 배금주의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성장케 한 구조[制度]인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에 격하게 저항했다. 그리고 이 저항과 거부의 표시로 탈성장과 소비와 생산 등의 축소를 내세웠던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이 지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창조세계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말 그대로 청지기인 호모 오이코노모스(Homo oikonomos)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집, οίκος)를 하나님의 법(規範, νόμος, nomos)에 따라서 잘 관리하는 삶(oikonomia, οικονομία, economics)을 실천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단지 청지기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앞에 수식어 '선한'(kalos, καλος)이 절대적으로 붙는 삶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kalos oikonomos)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다. 양희송의 책, 『세계관 수업』에 나온 다음의 내용을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청지기로 살아야 할 삶의 영역이 어디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든 분으로 묘사되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a new heaven and a new earth)에 대한 약속과 기대가 재천명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그분의 관심은 온 세상의 회복에 있지, 단지 인간의 내면세계를 위로하거나 사람들을 저세상의 천국으로 많이 보내는 것에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행위가 하늘과 땅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 만물이 순종하여 세계가 형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첫 창조의 이상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양희송, 2018: 137)

2 사족 붙이기

최근 개인적으로 다니는 구립도서관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익 요원이 구청에서 나온 분리수거에 관한 내용[manual]을 코팅해서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 암전하게 붙였다. 개인에게 분리수거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모든 것은 구조의 변화[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와 함께 개인의 변화를 요구해야 실질적으로 변화[效果]의 가능성과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개인들이 분리 수거를 잘 한다고 해도, 기업들의 과대포장과 과잉광고 등과 같은 관행들을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개인들의 분리수거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半減]이 되고 말 것이다. 간단하게 차량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나라는 대형차로 그것도 디젤(diesel) 차량(SUV)으로 가고 있다. 물론 한 곳에서는 경차네, 수소차네, 전기차네, 하이브리드네 하지만, 그 차량들에 비해 대형 디젤 차량의 소비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형편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지구온난화의 변화[抑制]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많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 온실가스는 과거에 비해서 더 증가하련지도 모른다.(Net Zero는 이상일 뿐이다) 개인의 실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TV 등에 나와 온실가스의 감소를 위해 토요타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량(Prius)을 타고 다니네, 수소차를 타고 다니네 하면서 큰소리로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소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개인전용 비행기를 타고, 개인전용 헬기를 타고 또 개인용 요트를 탄다면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개인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정에서 열심히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려고 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업의 무분별한 탄소소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절전과 생활방식의 개선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기후변화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식의 전도된 정책, 즉 사회책임과 기업책임, 공공책임을 개인책임으로 환원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신승철, 2018: 47).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에르베 캄프(Herve Kempf)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이 환경문제를 자각하던 시기에 아주 유용했던 한 원칙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였다. 여기에 오늘날의 상황과 맞물린 또 다른 원칙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소비를 줄이라. 그리고 더 잘 분배하라’”(Kempf, 2008: 10). 또 로즈마리 래드퍼드 류터(Rosemary R. Ruether)에 따르면, “뒤보(Rene Dubos)가 말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라는 유명한 표어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적으로 지구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또한 동시에 지역적으로 지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김규진, 2006: 287)

참고문헌

- 강상우 (2019). “먹을거리와 사회문제-먹을거리 불안전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관한 소고”. <기독교문학회>. (통권36호);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3347>.
- 강상우 (2011). “수용거부변혁과정 -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 : A.R.T 과정” <춘계학술대회>;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1036>.

- 김규진 (2006).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대식 (2019).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 파주: 21세기북스.
- 김주환 (2017). 『포획된 저항: 신자유주의와 통치서, 헤게모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 서울: 이매진.
- 신승철 (2018). 『탄소자본주의: 기후변화 시대의 마음의 생태학』. 서울: 한살림.
- 양희송 (2018). 『세계관 수업』. 서울: 복있는사람.
- 이승은·고문현 (2019).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파주: 21세기북스.
- 장석준 (2011). 『신자유주의의 탄생: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파주: 책세상.
- 장윤재 (2017). 『포스트휴먼 신학: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서울: 신앙과지성사.
- 장윤재 (2009).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 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전현호 (2011). “14장. 환경문제에 관한 신학적 고찰(考察)”. 『가능성과 한계: 지구환경과 인간의 삶을 한 눈에』. 서울: 위즈엔비즈. 373-397.
- 조천호 (2019). 『파란하늘 빨란지구』. 서울: 동아시아.
- 종교인대화모임 엮음 (2015). 『생태문제에 종교가 답하다』. 서울: 운주사.
- 최배근 (2018).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서울: 동아엠앤비.
- Albritton, Robert (2009) *Let Them Eat Junk: How capitalism creates hunger and obesity*. UK. Pluto Press. 김원옥 역 (2012). 『푸드쇼크』. 서울: 시드페이퍼.
- Attfield, Robin (1991).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2nd edn. Athens, Georgi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구승희 역 (1997). 『환경윤리학의 제문제』. 도서출판따님.
- Azam, Genevieve (n.d). “탈성장: 검소한 풍요의 사회로 가기 위한 상상력”. Solon, Pablo, Azam, Genevieve, Aguiton, Christophe, and Elizabeth Peredo Beltran (n.d.). *Systemic Alternatives*. 김신양·김현우·허남혁 공역 (2018).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서울: 착한책가게. 67-88.
- Beckert, Sven (2014). *The Empire of Cotton*. Alfred A. Knopf. 김지혜 역 (2018). 『면화의 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역사』. 서울: (주)휴머니스트.
- Borg, M. J. and N. T. Wright (1999). *The Meaning to Jesus: Two Visions*. 김준우 역 (2001). 『예수의 의미』.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 Castillo, Daniel P. (2019). *An Ecological Theology of Liberation: Salvation and Political Ecology*. Orbis Books. 안재형역 (2021). 『생태해방신학』.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 Cohen, Daniel (2012). *Homo Economicus*. Paris: Albin Michel. 박상은 역 (2013). 『호모 이코노미쿠스: 새로운 시대에 방향하는 선구자』. 파주: 예세.
- Cox, Stan (2008). *Sick Planet* London: Pluto Press. 추선영 역 (2009). 『녹색성장의 유혹: 글로벌 식품 의약기업의 두 얼굴』. 서울: 난장이.
- Ellul, Jacques (n.d.). *L'homme et l'argent*. 양명수 역 (2010). 『그리스도인의 선택-두 주인, 하나님이나, 돈이나』. 개정판. 대전: 대장간.
- Ericksen, Thomas Hylland (2016). *Overheating: An Anthropology of Accelerated Change*. London: Pluto Press. 정연우 역 (2019). 『과열』. 서울: 나눔의집.
- Fleming, Peter (2017). *The Death of Homo Economicus: Work, Debt and the Myth of Endless Accumulation*. Pluto Press. 박영준 역 (2018).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죽음』. 서울: 한스미디어(주).

- Gardner, Gary (2010). “세계관 형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 Worldwatch Institute, ed. (2010). *State of the World*. 오수길·곽병훈·정용일·이은숙 공역 (2010), 『소비의 대전환: 2010 지구환경보고서』. 서울: 도요새. 60-72.
- Gillespie, Kathryn (2018). *The Cow with Ear Tag #138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윤승희 역 (2019). 『1389번 귀 인식표를 단 암소』. 파주: 생각의길.
- Gomez-Barris, Macarena (2017). *The Extractive Zone: Social ecological and decolonial perspectiv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Goodchild, Philip (2007). *Theology of Money*. SCM Press. 이영훈 역 (2013). 『돈의 신학』. 대전: 대장간.
- Goudzwaard, Bob (1979), *Capitalism and Progress: A Diagnosis of Western Society*. Zylstra, J. Van Nuis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 Hamilton, Clive (2017). *Defiant Earth The Fate of Humans in the Anthropocene*. Cambridge. Polity Press. 정서진 역 (2018). 『인류세 Anthropocene』. 서울: 이상북스.
- Hamilton, Clive (2003). *Growth Fetish*. Allen & Unwin. 김홍식 역 (2011). 『성장숭배: 우리는 왜 경제성장의 노예가 되었는가』. 서울: 바오.
- Harari, Yuval Noah (2018).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전병근 역 (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파주: 김영사.
- Harari, Yuval Noah (2018). “1장.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Ohno, Kazumoto ed (2018). *Mirai Wo Yomu*. PHP Institute, Inc. 정현옥 역 (2019). 『초예측: 세계 석학 8인에게 인류의 미래를 묻다』. 초판14쇄.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12-56.
- Harvey, Davi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최병두 역 (2009)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초판4쇄. 파주: 한울.
- Houghton, John (2015). *Global Warming*. 5th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정지영·최성호 공역 (2018). 『지구 온난화의 이해』. 서울: 에코리브르.
- Hunt, E. K. (2003). *Property and Prophets: The Evolution of Economic Institution and Ideologies*. updated seventh ed. Armonk, NY: M. E. Sharpe. 유강은 역 (2012).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강의』. 서울: 이매진.
- Keller, Timothy (2010). *Counterfeit gods*. 윤종석 (2017).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서울: 두란노.
- Kempf, Herve (2009). *Pour sauver la planete, sortez du capitalisme*. Seuil. 정혜용 (2012). 『지구를 구하려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라』. 파주: 서해문집.
- Klein, Naomi (2014). *This Changes Everything*. 이순희 (2016).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의 대 기후』. 파주: 열린책들.
- Kotz, David M. (2015). *The Rise and Fall Of Neoliberal Capit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박세호 역 (2018).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서울: 나뭇잎.
- Lazzarato, Maurizio (2011). *La Fabrique de L'homme Endette, Essau sur la Condition Neoliberale*. 허경·양진성 공역 (2012). 『부채인간: 채무자를 만들어 내는 사회』. 메디치.
- Lilley, Sasha (2011). *Capital And Its Discontents*. PM Press. 한상연 역 (2011). 『자본주의와 그 적들: 좌파 사상이 17인이 말하는 오늘날 자본주의』. 파주: 돌베개.
- Magdoff, Fred and John Bellamy Foster (2011). *What Every Environmentist Needs to Know About*

- Capitalism*. 황정규 역 (2012).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서울: 삼화.
- Mann, Michael E. and Tome Toles (2016). *The Madhouse Effect*. Columbia University Press. 정태영 역 (2017). 『누가 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가』. 서울: 미래인.
- Reuss, Jürgen und Cosima Dannoritzer (2013). *Kaufen für die Müllhalde*. Freiburg: Orange-Press. 류동수 역 (2015). 『지구와 바꾸 휴대폰: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들의 음모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선택』. 서울: 애플북스.
- Robbins, Richard H. (2011), *Global Problems and the Cultural of Capitalism*. 5th edn.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김병순 역 (2014). 『세계문제와 자본주의 문화: 생산·소비·노동·국가의 인류학』. 파주: 돌베개.
- Rockström, Max und Mattias Klum (2015). *Big World Small Planet*. 김홍욱 역 (2017).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환경보호와 인류번영을 함께 도모하다』. 서울: 에코리브르.
- Solon, Pablo (n.d). “탈세계화(Deglobalisation): 세상의 상품화를 막고 참다운 지구공동체를 건설하자.” Solon, Pablo, Azam, Genevieve, Aguiton, Christophe, and Elizabeth Peredo Beltran (n.d.). *Systemic Alternatives*. 김신양·김현우·허남혁 공역 (2018a).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서울: 착한책가게. 185-210.
- Solon, Pablo, Azam, Genevieve, Aguiton, Christophe, and Elizabeth Peredo Beltran (n.d.). *Systemic Alternatives*. 김신양·김현우·허남혁 공역 (2018).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서울: 착한책가게.
- Swenson, Kristin (2010). *Bible Babel: Making Sense of the Most Talked about Book of All Time*. 김동혁 역 (2014). 『가장 오래된 교양』. 1판3쇄. 고양: 사월의책.
- Walsh, Brain J. and J. Richard Middleton (1984), *The Transformation Vision: Sharping a Christian World view*. 황영철 역 (1989).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IVP.;
- Werner-Lobo, Klaus and Hans Weiss (2014). *Schwarzbuch Markenfirmen: Die Welt im Griff der Konzerne*. Wien: Paul Zsolnay Verlag. 김태욱 역 (2015). 『세계를 집어삼키는 검은 기업』. 서울: 숨쉬는책공장.
- Worldwatch Institute, ed. (2010). *State of the World*. 오수길·곽병훈·정용일·이은숙 공역 (2010), 『소비의 대전환: 2010 지구환경보고서』. 서울: 도요새.
- Wright, Nicholas. Thomas. (2007). *Surprised by Hope*. 양혜원 역 (2009).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서울: IVP.
- Wright, N. T. (1999). “14장: 예수의 미래.” Borg, M. J. and N. T. Wright (1999). *The Meaning to Jesus: Two Visions*. 김준우 역 (2001). 『예수의 의미』.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301-311.
- Ziegler, Jean (2011). *Destruction Massive*. Zürich: Mohr. 양영란 역 (2012). 『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서울: 갈라파고스.

| 논찬문 | | 기독교학문연구회 | |
|------------|---|-------------|-----------------|
| 발표논문 제목 | 기독교와 인류세 :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인류세 문제의 기저 바라보기 | 발표자 | 강상우 |
| | | 논찬자 (소속) | 석종준 침신대 겸임교수 |

저자는 이 논문의 목적을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에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과 그 기저(基底)에 있는 숨은 가치(價値)를 바라보는 데 두고 있다. 이른바 인류세라고 명명되기도 하는 오늘날의 전(全) 지구적 범위의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은 이러한 청지기적 삶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경적인 청지기적 삶의 회복은 인류세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일 수도 있다는 소박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인간중심(anthropocentric)의 세(世)가 아닌 ‘선한 청지기적’(as good stewards) 삶이 중심이 되는 세(時代)를 지향함으로써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지구 온난화로 상징되는 인류세의 전 지구적인 피해들이 양산과 관련해서 “도대체 인간들이 품고 있는 중심 가치 또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기술한다. 요지는 인류세 인간이 mammon의 숭배를 제일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채굴(掠奪)과, 모든 것을 금전과 상품의 가치로 환원하는 금융화와 상품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잉생산과 과소비가 팽배했기 때문에, 지구상의 온실가스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즉 mammon을 숭배하는 경제활동 중심적 인간이 청지기적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해법들을 소개한 후, 궁극적 해법 모색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청지기 정신의 회복을 제안했다.

왜냐하면 저자에 따르면 이 세상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세계이기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은 호모 오이코노모스(Homo oikonomos)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집, οἶκος)를 하나님의 법(規範, νόμος, nomos)에 따라서 잘 관리하는 삶(oikonomia, οἰκονομία, economics)을 실천하는 자, “‘선한’ 청지기”(kalos oikonomos)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논찬자는 저자의 논문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긍정적 공헌을 확인한다.

첫째, 저자가 수십만 년 이상을 넘나드는 연대 구분 구획을 확정적 담론으로 전제한, 즉 홀로세(Holocene), 인류세(anthropocene) 등의 지질학적 시대 구분의 정당성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문제가 이미 되어 버린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선구적 연구의 가치를 갖고 있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인류세 문제의 핵심을 mammon즘에 기초한 성장주의와 금융화, 과소비와 과잉생산 등으로 파악하고 탈성장(De-growth), 탈금융화((De-financialization), 과소비의 억제와 적정생산 등을 대안으로 제안한 부분도 주목이 된다.

셋째,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 모색의 핵심 실천 방향을 ‘청지리적 인간’ 됨의 회복으로 설정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로 재인식할 것과 인간 역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청지기임을 자각하여 그에 따른 충실한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제안은 다분히 고전적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 담론으로는 여전히 확실한 설득력을 담보한다.

그러나 논찬자는 이 논문의 내용(전개)에서 드러난 다음의 몇 가지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논문 제목 : 저자는 인류세의 문제를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인류세 문제=지구온난화의 문제’라는 환원주의적 기술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이 논문의 한계임을 스스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인류세의 문제는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장차 자연(지질)에 뚜렷하게 남겨질 변화의 증거들, 즉 ‘질소 남용’, ‘플라스틱 축적’, ‘화석 연료 남용으로 인한 탄소 동위원소 비율 변화’, ‘닭 등 가축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생태계 급격한 혼란’, ‘방사선 낙진’, ‘콘크리트’ 등 수많은 관련 항목들이 중첩된 주제라는 점에서 논문 제목의 재수정이 요청되지 않나 싶다.

둘째, 논문 기술에 부적절한 표현들 : “.....논구의 깊이가 원론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식상하게 들릴 수더 있지만 말이다”(3면), “.....굳이 붙이려나 것은 매우 원칙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개인적 판단 때문이다.”(3면), “나는 데일 리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5줄 이상의 직접 인용문은 별도 박스 처리 필요).....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변화다.”(12면). “.....등은 책들의 제목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 책들은 성장제일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13면)

셋째, 저자는 논문 전개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2. 사족 붙이기”라는 항목으로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다. 또 이어서 논문 전개에서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 가령 “간단하게 차량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나라는 대형차로 그것도 디젤(diesel) 차량(SUV)으로 가고 있다. 물론 한 곳에서는 경차네, 수소차네, 전기차네, 하이브리드네 하지만, 그 차량들에 비해 대형 디젤 차량의 소비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형편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지구온난화의 변화[抑制]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 온실가스는 과거에 비해서 더 증가하련지도 모른다.” 라는 등의 주장 혹은 설교(?)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시도는 그야말로 사족 붙이기가 아니었나 싶다.